

1

한영태

경주시의회 동천동·월성동 후보



정당경력

- 전)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 현)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 현)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 전)경주시장 후보
- 전)경주시 국회의원 후보
- 전)경주시의회 의원
- 전)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 전)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 전)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 입실초등학교 49회 졸업
- 외동중학교 29회 졸업
- 경주고등학교 33회 졸업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시의회 의원선거 (경주시사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남	1964.3.24 (62세)	정당인	경주고등학교 졸업	전)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장 전)경주시의회 의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4,930	34,930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남:고지거부 장녀:고지거부	육군 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	장남:해군병장 (만기제대)

3. 세금 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29	0	0	- 절도 : 벌금 1,000,000원 (1998. 5. 1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벌금 1,000,000원 2013. 12. 24
후보자	0	0	0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129	0	0	

4. 소명서

전과기록 중 절도는 IMF로 인한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경매 처분된 거주 아파트의 싱크대 등을 개인 가구로 잘못 인식하여 반출하였고, 이로 인해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상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2012년 당시 같은 당 당직자가 상대 후보자의 당선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감정적으로 SNS에 비판 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필수하다

영도

대



- 어두운 산책길
- 수변개발
- 주거환경개선
- 폐철도
- 주차문제
- 관광인프라
- 등갯길
- 주민센터불편



2018년 시의원 재임 당시 산업도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례

서류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길이 있었습니다.

산업도로의 대형 가로등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져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

하지만 지속적인 요청과 노력 끝에
산책로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쳤던 작은 불편을
끝까지 해결하는 것.

그것이 생활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 시의회 운영위원장 역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의안발의 건 외 9건
- 5분 발언 11건 | 시정질문 2건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3건
- 시내버스 부당교부 보조금 7억 800만원 환수조치
- 국토교통위원회 [폐철도 활용법안]국회 소위 안건 상정
- 청와대불상 경주반환요구
- 경주대 서라벌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요구
-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주민투표 요구
- 고준위 핵쓰레기장 맥스터 건설중지 및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요구
- 제2금장교 위치변경 요구
-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 철회 및 천연기념물 남생이 보호를 위해 폐수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촉구
- 경주월성 복원사업 벚꽃나무 무분별한 벌목 문제점 지적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필요한 곳으로

저는 다시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내려놓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주에는 그 선택이 필요합니다.

24년 동안 민주당으로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2018년 시의원으로,
2022년 시장 후보로,
2024년 국회의원 후보로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두 번의 큰 선거는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선택,
경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부분 초선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큼니다.

경험 없는 의회는
견제하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합니다.
지금 경주에는
“절실하게, 일해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선택, 환영태



경주시민의 마음을 훔치는 의적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정치를 벼슬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삶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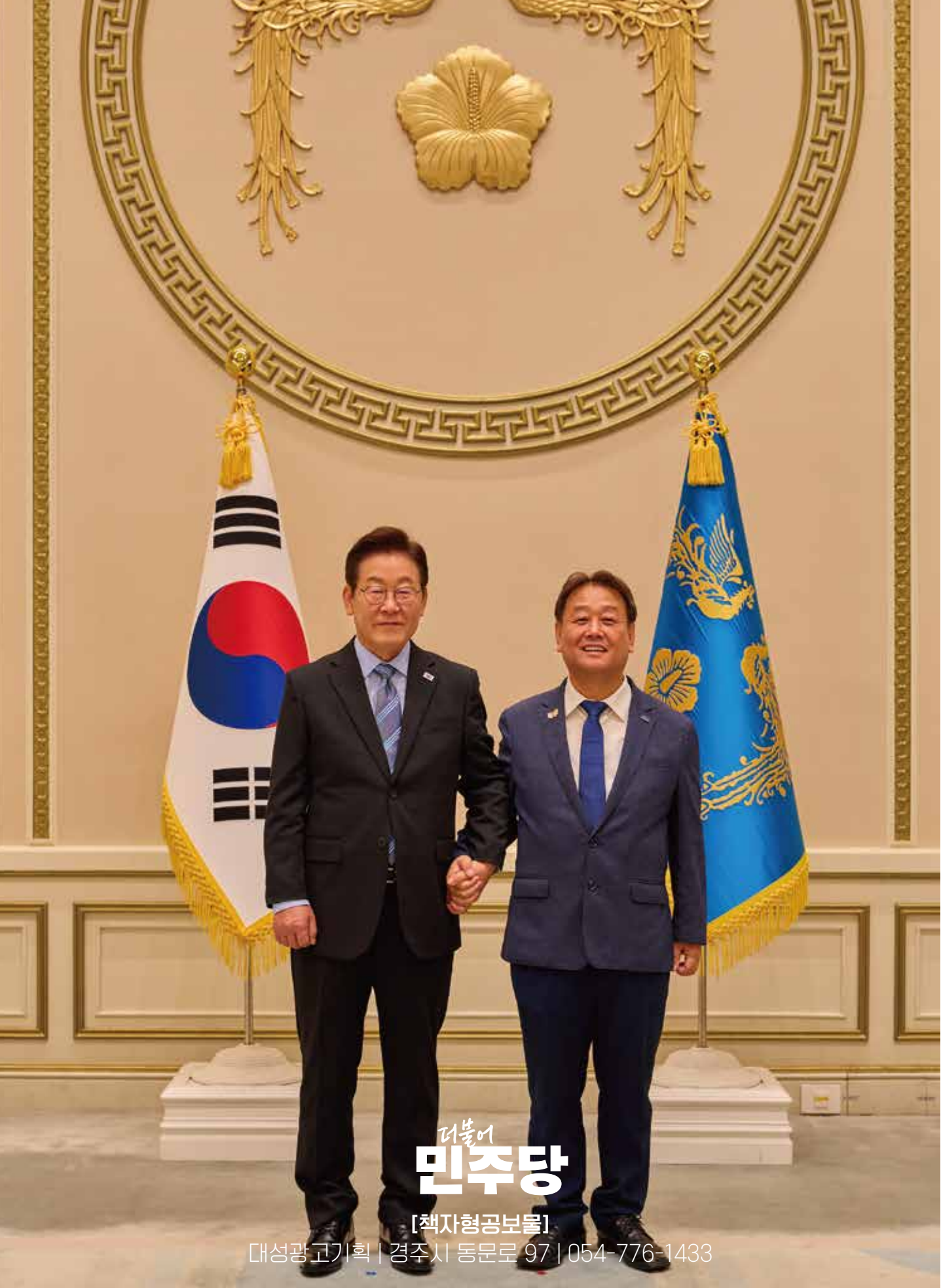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 했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불편한 곳을 먼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끝까지 듣는 사람, 경주시민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고자 합니다.
시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작지만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다해
경주시민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친구 같은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책자형공보물]

대성광고기획 | 경주시 동문로 97 | 054-776-1433